

위성미 '위풍당당' 상위권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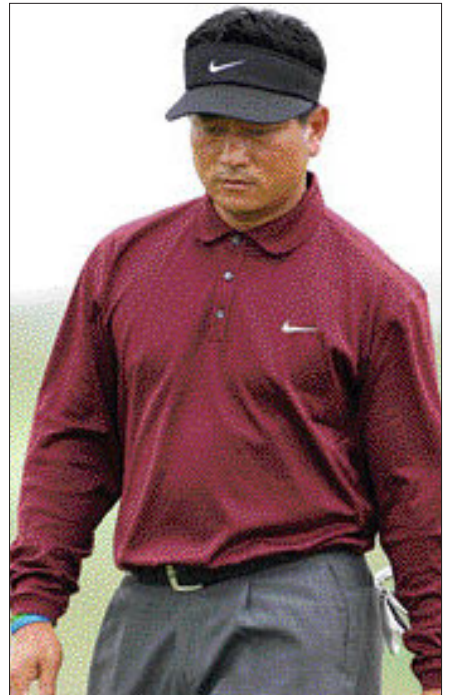
남자무대 7전8기 끝에 '컷 통과' 꿈 현실로
SK텔레콤오픈 2R 5언더...최경주는 4언더

막 10살을 넘긴 나이 때부터 '언젠가는 남자 선수들과 당당하게 겨루겠다'는 꿈을 키워온 17세 소녀가 7전8기 끝에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5일 한국프로골프 겸 아시아프로골프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2라운드 합계 5언더파 139타(공동 17위)로 컷을 통과한 위성미(17·나이지리아)의 '성공'은 오기와 집념의 결과물이다.
특히 실패한 거들했던 남자 무대 도전에

서 8번째만에 컷 통과를 이뤄낸 위성미의 성공은 장타력과 장타력이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게 향상된 샷의 정확도와 쇼트게임 능력을 얻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성미는 이번 대회에서 2라운드 내내 드라이버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
첫날 페어웨이 안착률은 무려 92.9%에 이르렀다.
이는 코스가 널찍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멀리 치기 보다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전략을 고수했기에 가능했다.

353야드에 내리막홀인 2번홀(파4)에서 4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때리는 등 위성미의 플레이는 알기울만큼 다음 샷이 편한 곳으로 볼을 보내는데 집중했다.
이런 페어웨이 고수 전략은 덩달아 아이언샷의 그린 적중률 향상으로 이어졌다.
1라운드 때 그린 미스가 4차례에 불과했던 위성미는 2라운드에서도 정규 타수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리지 못한 것은 3번 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은 높은 그린 적중률은 남자 선수와 대등한 비거리에 힘입은 것.

드라이버로 280야드는 가볍게 때려낸 위성미는 남자 장타자에는 뒤졌지만 그린을 아이언으로 공략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더구나 5번 아이언으로 200야드를 칠 수 있는 위성미의 아이언 비거리라는 남자 선수와 다를 바가 없었다.
때문에 위성미는 4번홀(182야드), 8번홀(171야드), 12번홀(211야드), 16번홀(197야드) 등 파3홀에서도 모두 아이언으로 티샷을 할 수 있었고 높은 그린 적중률의 밑바탕이 됐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항상 약점으로 지적되던 퍼팅 실력이 놀랍도록 향상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앙감이 높은 상황에서 맞은 파퍼트를 1라운드 때와 2라운드 때 각각 한차례씩만 놓쳤을 뿐 실수없이 성공시킨 것은 컷 통과와 일등공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퍼팅에서 약점이 사라진 사실과 연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1라운드 17번홀에서 두번 제샷을 몰에 빠트리기도 다음 샷을 홀 80cm에 붙여 보기로 막아낸 것은 경기 흐름상 최대의 위기를 벗어난 대목이었다.
합계 플레이를 한 김대섭(25·SK텔레콤)은 "코스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하더라"면서 "쇼트게임 때 집중력이 뛰어나고 퍼팅에서도 찬스는 거의 놓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탱크 최경주가 5일 열린 SK텔레콤 오픈 2라운드 파5 3번홀에서 그린에 오르고 있다. 최경주는 이날 4언더파 공동 23위로 경기를 마쳐 2연패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한편 최경주는 5번홀에서 두 번째 샷이 장애물을 맞고 OB지역으로 튀는 불운과 퍼트 불안이 겹쳐 이븐파 70타로 중간합계 4언더파 공동 23위로 2연패가 어렵게 됐다. 11언더파를 올린 태국의 프롬 미사왓 등이 공동선두를 다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자골프선수의 남자 대회 도전사

연도	대회명	선수명	결과
1945년	PGA 로스앤젤레스오픈	지하리니스	컷통과
	PGA 벙크오브브로니얼	소렌스탐	컷오프
	PGA 그레이하트퍼드오픈	웨이리	"
2003년	캐나다 투어메이일스오픈	위성미	"
	PGA 2부투어보이시오픈	"	"
2004년	한국오픈	데이비스	"
	시니어투어 터틀베이	스티븐슨	최하위
	SBS최강전	박세리	컷통과
	PGA 신시오픈	위성미	컷오프
2005년	일본 키시오월드오픈	구스타프손	"
	PGA 신시오픈	위성미	"
2006년	PGA 존디어클래식	위성미	"
	일본 키시오월드오픈	미야지토	"
	일본 오기노오픈	위성미	"
2006년	PGA 신시오픈	위성미	"
	한국 SK텔레콤오픈	위성미	컷통과

스포츠 중계

- 6일(토) ▲NBA 플레이오프(08:30·MBC ESPN)
- ▲메이저리그(시카고C-샌디에이고)(10:55·Xports)
- ▲SK텔레콤 오픈 골프 3R(11:00·MBC ESPN), (14:00·MBC)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50·SBS스포츠)
- ▲프로야구(현대-삼성)(18:00·KBS SKY SPORTS), (KIA-한화)(18:30·MBC ESPN)
- ▲독일 분데스리가(카이저슬라우테른-바이에른 뮌헨)(22:10·KBS SKY SPORTS)

- 7일(일) ▲PGA투어 와코비아 챔피언십 3R(04:00·SBS스포츠)
- ▲메이저리그(세인트루이스-플로리다)(06:55·), (시카고C-샌디에이고)(10:55·Xports)
- ▲프로야구(SK-롯데)(13:50·SBS스포츠), (두산-LG)(14:00·KBS1), (현대-삼성)(13:50·KBS SKY SPORTS), (KIA-한화)(14:00·MBC ESPN)
- ▲SK텔레콤 오픈 골프 3R(11:00·MBC ESPN), (14:00·MBC)
- ▲K-리그(울산-대구)(17:30·MBC ESPN, KBS SKY SPORTS)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50·SBS스포츠)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찰튼-맨체스터 Utd)(23:00·MBC ESPN)

기아 “어린이 팬들 미안해요”

어린이날 한화에 4대5 역전패



어린이날 5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KIA-한화전이 그랬다. 3-1로 앞선 2회초 KIA 선발 그레이 싱어는 무사 1,2루에서 한화의 9번 김민재와 맞섰다.
다행히 김민재는 유격수 김중국 앞으로

굴러가는 힘없는 병살타성 타구를 때렸고 실점 위기를 넘기는 듯 했다.
그러나 김중국의 너무 앞선 의욕이 화를 불렀다.
더블플레이를 의식한 김중국은 성급하게 처리하다 공을 뒤로 흘렸고 그 사이 2루 주자는 홈을 파고들었다. 스코어는 2-3으로 좁혀졌고 무사 1,3루가 됐다. 한화는 희생플라이와 안타 하나를 더 묶어 2점을 또 앞지렀다.
한편 KIA는 지난 4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7-6으로 진땀승을 거뒀다.
/박진표 기자hucky@kwangju.co.kr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음
차려드립니다 (1인분 기준)

- ▶김장상
- ▶오동상
- ▶초가축상
- ▶대기축상

담양한과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삼우상사
 1주:8월모집러 광주지사 ☎(061)220-4242
 237-6262
 524-6262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
엘케이그린(주)
수도배관은 청소를 진하다구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십니까?
엘케이그린(주)
 ☎(061)603-0799